

도민체전 성공 개최 군민과 이끈다 산불 피해 산물 자원화 ‘한뫼’

진안군, 2026년 전북자치도 양대체전 조직위원회 출범식·성공개최 결의대회 개최

진안군은 5일 군청 광장에서 2026년 개최 예정인 전북자치도 양대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는 조직위원회 출범식 및 성공개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진안군 역사상 최초로 개최되는 제63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2026. 9. 4.~9. 6.)와 제20회 전북특별자치도민장장애인체육대회(2026. 9. 18.~9. 20.)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2026년 전북자치도 양대체전 조직위원회, 범군민참여위원, 진안군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조직위원 위촉장 수여 △기념사 및 축하 △준비상황 보고 △결의문 낭독 △성공개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생태치유 진안에서 하나되는 전북도민’을 슬로건으로, 군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대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이 이어졌다.

행사 후에는 체전 성공개최를 염원하는 ‘군민 걷기행사’가 이어져 출범식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특히 진안군은 이번 대회를 인근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체육 인프라 확충 노력을 통해 성사시켰다



진안군은 5일 군청 광장에서 2026년 개최 예정인 전북자치도 양대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는 조직위원회 출범식 및 성공개최 결의대회를 열었다.

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지역 간 상생과 연대의 결실이자, 진안군이 명실상부한 전북체육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춘성 조직위원장(진안군수)은 “이번 양대체전은 진안군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기회”라며 “진안군의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군민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이끌어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봉은 체육회장은 “도민체전 개최가 체육인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진안 체육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진안군은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준비 체제에 돌입해, 기반 정비, 범군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2026년 전북자치도민체전과 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향한 발걸음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한국조폐공사 ‘맞손’

무주사랑상품권 업무 대행 협약

무주군이 무주사랑상품권의 안전한 발행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에 운영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5일, 무주군청 군수실에서 ‘무주사랑상품권 업무 대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성장훈 한국조폐공사 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무주군은 내년 4월부터 한국조폐공사의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인 ‘착(chak)’을 활용해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카드 결제 및 QR결제 등 다양한 방식이 도입돼 지역 주민과 상인들 모두가 편리하게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다양한 결제 수단 제공으로 이용 편의성이 높아짐에 따라 무주사랑상품권 사용도 활성화 될 것”이라며 “무주경제가 살리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성장훈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무주군민의 신뢰를 얻고, 나아가 무주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인구활력 추진단 회의 개최

진안군은 5일 군청 상황실에서 주영환 부군수 주재로 2025년 진안군 인구활력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진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됐으며 국장, 실과소장 등 25명이 참석해 2026년 생활인구 210만 명 달성을 위한 부서별 추진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각 실과소별로 생활인구 확대사업과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안)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협업방안과 신규 시책 발굴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주영환 부군수는 “진안군은 이제 단순히 주민등록 인구 중심이 아니라 생활인구를 기반으로 한 지역 활력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



부서가 추진 중인 사업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높여, 진안이 ‘찾고 머물고 싶은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군 산림조합·남원산림조합(주)유니드비티플러스 업무협약

무주군은 5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무주군산림조합(조합장 박철수), 남원산림조합(조합장 허운영), (주)유니드비티플러스(대표 한상준)와 ‘산불 피해 산물 자원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지난 3월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면적: 232.8ha, 주요 피해 수종: 참나무, 소나무류)로 인해 훼손된 산림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조속한 복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무주군은 이들 기관 및 업체와 △무주군 내 산림 자원 및 산물 피해목 자원화를 위한 공동 업무를 수행하고 △산불 피해 산물의 생산·공급·복구, △산도 산림경영단지 등 기타 사업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 구축이 산물 피해 지역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림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산불 피해목의 활용 증



대와 산림 자원의 이용, 목재산업 활성화, 나아가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까지 전화위부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산물 피해 산물을 목재나 에너지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자원화하는 데 협력한다는 점에서도 기대가 크다”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협력 기반을 조성해 ‘지산치소(地産地消)’형 모델을 구축할 방침으로, 산물 피해 지역 복구계획에 따라 이달부터 발재를 시작하고 내년 3월부터는 조림에 들어갈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제42회 노인대학 수료식 개최

장수군은 지난 4일 (사)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지회장 허기태)가 장수군 사회복지회관에서 제42회 노인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홍병길 노인대학장과 107명의 노인대학생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최훈식 장수군수와 최한준 군의회 의장, 기관·단체장, 지회 임원 등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수료식은 국민의례, 학사 보고, 수료증 수여, 우수 수료생 표창, 격려사 및 축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학업에 대한 열정과 배움의 기쁨이 어우러진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축하하며 마무리됐다.

최훈식 군수는 축하사를 통해 “배움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노인대학을 통해 평생교육의 결실을 거두는 어르신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노인대학에서의 배움과 인연이 앞으로의 인생이 더욱 풍요롭게 하길 바라며 장수군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국민 편의 위해 산림행정 규제 개선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그 동안 현실에 맞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각종 산림분야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 편의 위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번에 개선한 주요 산림행정 규제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임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하우스 등 지원 확대 △교통 취약지 등에 거주하는 임업인의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연접시군 30km 이내 산림조합에서 정액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지역 농산물 판매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면적 합계 500㎡ 미만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하는 한편 △소나무 판매와 이동을 위한 절차 간소화로 임업인의 편의 제고를 위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재발급 등을 들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진안군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의 시작에 따라 산불 방지를 위해 지난 10월 20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마산, 구봉산, 운장산 등 우리 군의 명산을 찾는 입산객과 영농활동을 위한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산불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운영 기간 동안 산림 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 내 영농부산물 소각과 논·밭두렁 소각이 전면 금지되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와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을 하면 산물전문파쇄화대를 투입해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고위직 공무원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장수군은 지난 4일 군민회관에서 기관장 및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2023년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1년부터 고위직 공무원에 포함한 전 공공기관 의무교육으로 시행되고 있는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날 교육에는 최훈식 장수군수와 이정우 부군수, 그리고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29명이 참석했으며, 폭력예방 전문강사인 홍미선 강사가 초청돼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딥페이크 등 다양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관리자와 기관장의 역할, 조직 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 등이 다뤄졌으며, 참석자들은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윤리의식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장수=고판호 기자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